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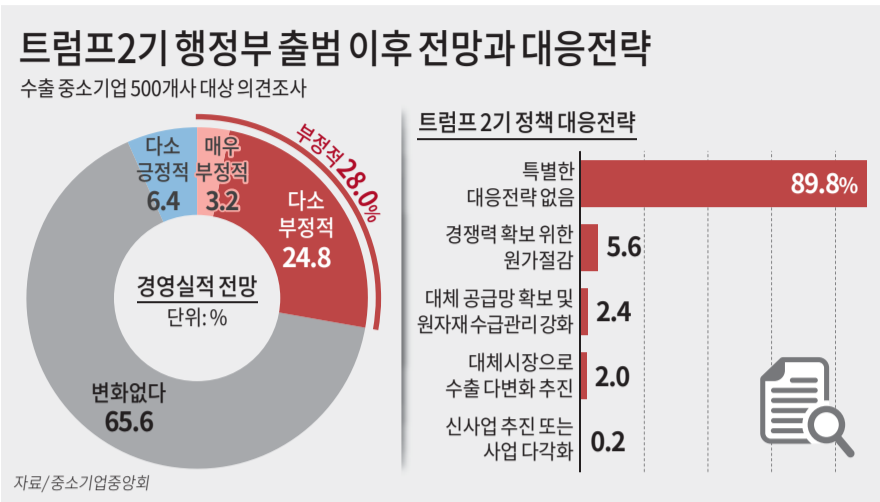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영향, 中企 28% '부정적'... 공급망·환율 부담

**중기중앙회, 500곳 대상 조사**  
무역규제·강달러 우려, 89.8% 무방비  
고환율 대응 無 84%... 적정 1300원대  
기업들 "원자재·금융 지원 확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긍정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무역 규제 강화, 강달러 기조, 공급망 불안정 등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대응 전략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환율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원·달러 적정 환율은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10~21일 중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고환율 장기화에 대한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 (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답변이 28%로 '긍정적' (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대답(6.4%)보다 4배 가량 많았다. '변화없다'는 전망은 65.6%였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보편적

기본 관세 등 무역 규제 강화 도입' (61.4%)과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5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비용 증가' (38.6%)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전략은 많지 않았다. 89.8%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원가 절감 전략' (5.6%), '대체 공급망 확보 및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 (2.4%), '대체 시장(유럽,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 추진' (2.0%) 등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이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영향이 46.2%로, 19.2%인 '긍정적' (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영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부정적 이유로는 ▲원부자재 비용 증가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43.3%)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확대(28.6%) ▲물류비 상승(14.3%) 등이었다.

그러나 길어지는 고환율에 대해서도 83.6%의 기업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 공정 효율화' (5.8%), '제품 가격 인상' (5.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2.6%) 등을 하겠다는 곳은 소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한 지원책 확대(24.2%) ▲금융 지원(정책자금·보증 등) 확대(22.4%) ▲물류비 지원 확대(21.0%) ▲세제 지원(법인세·투자세액 공제 등) 확대(19.4%) 등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에 대해서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350원 이상~1400원 미만'이 23.8%, '1400원 이상~1450원 미만'이 18.6%였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 금융·세제 지원과 원부자재·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전투기 훈련장비' 폴란드 운송 성공

시물레이터 2대 등 5주간 운송  
군사물자 특성 반영, 캐나다 경유  
모듈형 운송·무진동 차량 투입

CJ대한통운이 전투기 훈련장비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K-방산'의 물류 파트너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CJ대한통운은 전투기 훈련장비 시물레이터 2대를 폴란드로 운송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우주산업(KAI) 고성 공장에서 출고한 전투 임무 시물레이터(Full Mission Simulator, FMS) 1대와 운용 비행 시물레이터(Operational Flight Trainer, OFT) 1대를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까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주에 걸쳐 운송



CJ대한통운이 전투기 훈련 시물레이터를 한 국에서 폴란드까지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했다.

전투기, 전자 등 주력 방산장비와 마찬가지로 훈련 장비인 시물레이터 또한 정밀한 전자 장치와 복잡한 기계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운송 과정에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외부 충격과 진동에 민감해 운송 중 손상 위험이 높아 고도의 물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CJ대한통운은 운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을 분해된 상태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을 적용했다.

35개의 부품으로 분해한 시물레이터를 개별 포장해 국내 육상운송, 항공운송 및 폴란드 현지 육상운송을 수행했다. 총 28톤에 달하는 대규모 화물에 외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및 해외 현지 내륙운송 시 총 15대의 무진동 차량이 투입됐다.

화물이 폴란드에 도착한 후에는 철저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상태 점검과 반입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분해된 부품들을 조립해 최종 완성체로 복

원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CJ대한통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별 영공 통과 규정, 보안 요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항공 경로를 설계했다. 시물레이터가 군사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영공 통과에 제한이 있어 한 국에서 폴란드로의 직항 대신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하는 우회 경로를 채택했다.

CJ대한통운 장영호 IFS본부장은 "방산물류에 특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화물운송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폴란드항 시물레이터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안정적인 물류 운영을 통해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K방산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기보 중남미에 기술평가 전수

기술보증기금이 중남미에 기술평가 노하우 등을 전파한다.

기보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코스타리카형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IDB 현지 컨설턴트와 협력해 코스타리카개발은행(SBD), 무역투자진흥청(PROCOMER), 혁신연구진흥원(PROINNOVA), 기술연구소(TECH) 등을 대상으로 2026년 9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IDB와 기술지원 컨설팅 계약  
코스타리카 기술평가·보증 지원

이번 계약을 통해 기보는 ▲한국의 혁신 제도 벤치마킹 보고서 작성 ▲코스타리카형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코스타리카형 기술보증제도 설계 및 업무 매뉴얼 작성 ▲정책 확산 세미나 개최 ▲기보-IDB 공동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보는 2024년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다. 이에 IDB는 중남미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도구로 기술평가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기술금융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 중 코스타리카를 두 번째 협력국으로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 제주항공, 기내서 배터리 불나면 '자체 진화' 홈앤쇼핑, 6억 규모 성과공유제 시행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 도입

제주항공이 배터리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와 '내열 장갑'을 기내에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최근 모든 항공기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와 내열장갑을 비치하고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공지했다.

화재 진압 파우치의 외피는 1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염 소재인 '실리카'로 만들어졌다. 내부는 '질석 패드'로 구성돼 있어 파우치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질석이 열기에 녹아 배터리를 덮으며 산소를 차단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항공기 기내에서 배터리의 발열 및

팽창 현상이 나타날 경우 승무원은 배터리를 해당 파우치에 넣어 항공기 뒤쪽 주방에 보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한 화재 진압 파우치는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인 KATRI 시험연구원의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제작업체 선정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재질 선정, 디자인, 사용 매뉴얼 제작 등 파우치 도입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 화재 진압 파우치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40개 협력사에 1500만원씩 현재까지 658곳, 67억 지원

홈앤쇼핑이 올해 6억원 규모의 성과공유제 시행에 들어가는 등 중소기업과 상생을 이어간다.

24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올해 성과공유제를 통해 40개 협력사에 15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2012년 개국한 홈앤쇼핑은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2013년부터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658개 중소기업 협력사에 총 67억원을 지원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취지를 더욱 잘 살릴 뿐 아니라, 대상 업체의 안정적 경영

활동과 기술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홈앤쇼핑은 협력사 상품 판매 대금 지급 시기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사업 초기 평균 32.5일이던 대금 지급시기를 현재는 평균 8일 수준으로 3주 이상 대폭 축소했다. 매월 10일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금액을 정산해 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상생펀드 운용 ▲미자 자금 대출제도 신설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인증 (ISO37001) 등 홈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정도경영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무까지도 완수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